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170/200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1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인문·예술07

[01~0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덕을 신의 명령과 동일시하는 '신명론(神命論)'은 예컨대 남을 해쳐서는 안 되는 이유는 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신명론은 특정 종교와 관련 없이 인류의 역사에서 뿌리 깊은 생각으로, 도덕은 종교와 연관되었다는 가정을 품고 있다. 그 가정에는 신은 모든 선한 행동을 명하고 모든 악한 행동을 금한다는 것과, 우리는 신이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금하는지 알 수 있다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 있다.

그런데 플라톤은 「에우튀프론」에서 신명론을 비판했다.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처럼 고대 그리스 신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했지만, 만약 신이 완벽히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도덕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신이 명하기에 그것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선하기에 신이 명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앞의 질문에 긍정하는 것을 **A 견해**, 뒤의 질문에 긍정하는 것을 **B 견해**라고 해보자. A 견해는 신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도덕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도덕이란 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물이다. 한편 B 견해는 신과는 독립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있다는 뜻이다. 도덕이란 신과는 독립된 객관적인 규범이고 신은 절대 틀린 적이 없는 심판관으로서 선한 것은 명하고 악한 것은 금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플라톤은 신명론이 **딜레마**에 빠짐을 지적한다.

먼저 A 견해가 옳다고 해 보자. 이 견해에 따르면 신이 무엇인가를 명하는 순간 그것은 선한 것이 되므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닌 나쁜 행동이라고 공표하는 것에는 어떤 도덕적인 이유도 없다. 이는 신이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곧 도덕이라는 뜻이기에 도덕이 독단적임을 뜻하게 된다.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우리의 도덕적 의무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는 것은 비도덕적이므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도덕이란 신의 결정과는 독립된 객관적 기준이라는 견해로서, A 견해를 버리고 B 견해로 가는 것이 된다.

신명론이 B 견해를 채택한다고 해 보자.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B 견해에서는 도덕과 종교는 논리적으로 별개이며, 신은 도덕적 사실의 존재나 도덕적 사실이 무엇인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는 도덕과 신을 관련시키려는 신명론의 의도와 거리가 멀고, 신이 없어도 도덕은 성립한다. 결국 신명론은 A 견해를 채택할 수도 없고, B 견해를 채택할 수도 없다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신명론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 신을 믿는 사람은 도덕을 신과 관련시키지 않았을 때 불경스럽다고 믿기에 신명론을 받아들인데, 플라톤의 비판은 오히려 신명론 자체가 불경스러운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 주기에 독실한 사람은 신명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된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철학자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신명론을 거부했다.

1.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독단을 피하려고 한다.
- ② 토마스 아퀴나스는 독실한 것과 도덕적인 것은 별개라고 생각했다.
- ③ 플라톤은 자신의 신명론 비판이 당시 그리스 신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 ④ 토마스 아퀴나스와 달리 플라톤은 무신론자이기에 신명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⑤ 신명론에서는 신이 금하면 악한 행동이 되지만 모든 악한 행동을 신이 금하지는 않는다.

2. **딜레마**가 뜻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의 명령이 비도덕적이거나 신이 보기에 우리의 행동이 비도덕적이다.
- ② 신이 도덕을 독단적인 것으로 만들거나 신의 명령이 도덕과 상관이 없다.
- ③ 신의 명령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신의 명령에 대한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다.
- ④ 신이 우리가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거나 우리의 실행이 신의 명령과 부합하지 않는다.
- ⑤ 신이 비도덕적인 것을 도덕적 의무로 만들거나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신의 명령과 부합하지 않는다.

3. [A 견해] 와 [B 견해] 에 관한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A 견해는 B 견해와 달리 신의 명령은 도덕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 ② B 견해는 A 견해와 달리 도덕적 규범이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한다.
- ③ A 견해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B 견해는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 ④ A 견해와 B 견해 모두 도덕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 ⑤ A 견해와 B 견해 모두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기에 신이 명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4. 윗글에 제시된 '신명론'에 대한 비판적 의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의 명령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② 신이 완벽하게 선하다는 것도 의심해야 하지 않는가?
- ③ 신이 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④ 신이 여럿일 때 각각의 명령이 다르면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 ⑤ 신은 심판관으로서 상과 벌을 주지만 일일이 명령은 안 내릴 수도 있지 않은가?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무고한 사람을 해친 어떤 사람을 체포하자, '이 사람'은 자신은 신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이 그 사람을 해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 ① '이 사람'은 신이 무엇을 명하는지 잘못 알고 있군.
- ② '이 사람'은 남을 해치는 것이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군.
- ③ '이 사람'의 행동은, 만약 신명론이 옳다면, 도덕적인 것이 되겠군.
- ④ '이 사람'은 설령 남을 해치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를 찾더라도 신의 명령이 도덕이라고 생각하겠군.
- ⑤ '이 사람'에게,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공포하는 것에는 어떤 도덕적인 이유도 없겠군.